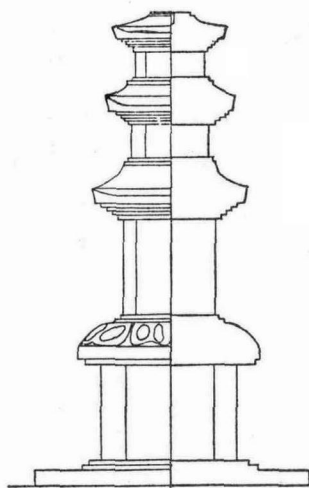


(2) 梅谷里三層石塔 3=30:1



은 長臺石이 甲石을 바치고 있다. 花崗岩製、高麗初期作品 (2) 梅谷里 三層石塔 總高 十二尺九寸 同里 二五二의 二號 尹在德氏宅 東側 田中에 設는 이 탑은 四枚의 地臺石 위에

崗岩製 高麗中期—末期에 屬하는 作品인 듯 하다.

註

- ① 東國輿地勝覽(卷八 竹山條) 飛鳳山下 奉業寺에는 「今只有石塔」이라는 記錄이 있는데 이곳 寺址石塔과 어떤 連關을 갖는 것인지 명확치 않다. 寺址에서 高麗初期 陶器破片과 後期 粉靑破片多數와 瓦當 初期立佛 菩薩頭部가 發見되고 있어 麗初나 그前부터 存續하던 寺刹이었을 것으로 暗示해 주고 있다. 이 點은 奉業寺의 麗太祖 眞影安置云云의 記錄과 符合된다.
- ② 幢竿支柱 總高一四尺、幅長邊 二·五五尺 短邊 一·六五尺 擦柱固定溝長 一·四五尺、幅四寸

資料

「七甲山長谷寺金堂重修記」

李殷昌

昨年 忠南青陽 長谷寺의 補修時 發見된 懸板文인 바 同寺 上大雄殿의 重修事實과 莊嚴을 傳하는 資料이다. (乾隆四十二年丁酉는 正祖六年 西紀一七七七年이다)

青陽縣東有七甲山之勝者也. 鵲川環其外水之佳者也. 山之南水之北有一洞壑深而幽. 其中有寺名曰長谷. 不知創於何代而至今業林稱之以普照國師之道場. 亦嘗三次重創於麗代則其闕劫多矣. 就中金堂最勝從古修戒僧所掛牌. 其法堂下鋪壁用石臺安石佛二座又有金佛三座安卓子. 東壁畫佛歷世既久宛然如昨傳稱吳道子所畫. 六間乃頽剝滲漏久爲山林之欠事矣. 何幸比丘與善男子聚財設契者有年. 餘乃謀旅衆曰、今契物錢若干穀若干此足以稱幣咸曰可. 遂以今年四月日始役易瓦之破者而新之則棟宇改觀咸曰事已完矣. 此不可無記. 於是略敘其顛末如右仍錄諸施主姓名於下方以爲不朽之圖云爾

乾隆肆拾二年丁酉四月日山之僧學演 識佛養

施主秩 (通政 朴茂春兩主以下僧俗名省略)

飛鳳山 連峰山麓 (2)의 塔과 相距 一〇〇m 標高一〇〇m 地點에 如來立像이 仰臥하고 있고 그 옆에 塔身 屋蓋石이 各二個 散在하고 있다. 石佛과 同代 同質의 花崗岩인데 크기로 보아 初層塔身 二層屋蓋 三層塔身과 同屋蓋로 推測된다. 塔身에는 隅柱가 있고 蓋石의 檐下部에는 後期에 나타나는 弧線의 模樣이 보인다. 高麗初—中期의 作品인 듯 하다.

(4) 梅山里 五層石塔 總高約 七尺

同里三〇七番地 彌勒石像 前約 五米 地點에 像과 南北一直線上에 놓인 이 塔은 앞은 下層基壇과 높은 上層基壇을 갖었는데 甲石의 落水面에 中央이 婉曲한 曲線으로 隆起되어 있는 特異한 手法을 보이고 있다. 地臺石은 半埋沒되었는데 약간 흔들려진 감이 있다. 基壇과 初層塔身은 隅柱 二層以上의 塔身은 缺하고 있어 屋蓋만을 층층이 쌓았는데 四層屋蓋는 없고 五層屋蓋 밑에는 조그만 塔身이 같이 만들어졌다. 同 屋蓋石 上面에 一邊 一·五寸 深 一·五寸의 方形擦柱孔이 있다. 小規模이지만 하지만 아담한 짜임새였을 이 塔은 原位置에 놓였는 것으로 推定된다. 花